

문여는 공공시설... “방역망은 더 촘촘히”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내달 시범 개방
22일부터 확대... 감염 위험 등 고려해 일정 조정

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됐던 제주도에 공공시설이 오는 6월부터 다시 문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6월 4일부터 공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시범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초·중·고 등교에 따른 코로나19 발병 추이를 보면서 공공 시설 개방과 관련 3단계 대응에 나선다. 우선 이달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공시설 개방 준비 기간을 거친 뒤, 6월 4일부터 21일까지 시범 개방을 실시한다. 이후 6월 22일부터 공공시설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립 박물관(9개소)과 미술관(7개소)은 운영 재개를 위한 부분 개방과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6월 22일부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내 공립도서관(15개소)은 6월 4일부터 도서 대출을 위한 자료실을 개방하며, 열람실 개방에 따른 사전 준비(좌석배열, 칸막이 보장 등)를 시행한다.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실외 시설은 일반인, 실내 시설은 전문 선수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가능한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한해서는 이달 27일부터 부분 개방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행정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설명회, 보고회, 축제, 공연 등도 6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단, 개별 공공시설의 특성과 감염 위험도에 따라 시범 개방 방식과 구체적 개방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교 등교·개학이 완료되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유지되며, 추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로당 등 이용 시설의 경우 별도 운영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한다. 요양원·장애인 시설 등 집단 거주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별도의 운영 방침 마련 시까지 외부인의 시

설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방역을 위한 자원봉사자, 식품품 배달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외부 출입을 허용한다.

한편 20일부터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공·항만 특별입도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항만에서 진행 중인 국내선 도착장 발열감시체계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등 특별입도절차는 당분간 유지된다.

제주도는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촘촘한 방역체계와 꼼꼼한 복지체계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0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서귀포시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에 약대 유치, 함께 힘 모으자”

위성곤 의원, 정책간담회서
시정 현안 해결에 협력 약속

서귀포시는 20일 오전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귀포시 현안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국비 예산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운경 서귀포시장과 실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숙박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래 전망을 위해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서귀포시의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그 예시로 공공 공유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국내에도

진출한 ‘위워크’의 예를 들며 “제주도에 비즈니스 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보통 단기간인 경우가 많다. 위워크와 같은 공유사무실의 형태가 서귀포에서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제주대학교 측에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양운경 시장은 “제주대 약대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약대 유치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기에 행정과 함께 총력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기관의 서귀포 이전 의지를 느꼈으며 행정의 도움도 요청했다. 위 의원은 “기관들이 내려오려면 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힘이 필요하다”며 “서귀포시에서 유치에 나서주시고 부처 간 협력이 되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환경 지키는 ‘NIE패스포트’ 무료 배부

신문협회, 전국 초중고 대상

한국신문협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 지구환경 지키기와 재난예방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패스포트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태풍, 지진 등 재난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고 패스포트에 제시된 지구환경 지키기와 재난예방 관련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는 NIE 워크북이다.

이에 신문협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신문협회 홈페이지에서 패스포트 과제를 수행할 학생 1만5000

명(초 6000명·중 5000명·고 4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학생 1명당 1부씩, 단체는 학교당 최대 100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패스포트를 받은 학생들은 신문 지면이나 신문사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 15개 활동과제를 수행한 뒤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된다.

이후 신문협회는 9월 18일까지 확인 도장이 찍힌 패스포트를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단체상 수상 학교에는 상금 100만원, 개별 수상자에게는 대상 3명 각 100만원, 최우수상 3명 각 50만원, 우수상 6명 각 30만원, 장려상 30명 각 5만원 등이 지급된다.

송은범기자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 문화와 의식 확산을 도모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을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양성평등주간은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는 9월 1일부터 9월 7일로 변경 추진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주간을 활용해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성차별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연구, 기념행사, 홍보사업 등이다. 사업별 지원 금액은 1000만원 이내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성평등정책관(710-6511-2)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태윤기자



쾌청한 소만, 신나는 운동. 절기상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는 소만(小滿)인 20일 제주시 오라동 종합경기장 내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시민들이 그라운드골프를 즐기고 있다.

“농가 비용부담 덜고 사용 손쉽게” 시설과수 스마트팜 모델 만든다

농기원, 2022년까지 개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팜 시스템 모델이 개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원격기반

단위제어, 센싱장치기반 원격제어, 현장실증의 단계를 거쳐 제주형 저비용 시설과수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스마트팜 시범 70농가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은 인건비를 줄여주고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고가인데다 업체의 A/S가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제주지역 대부분의 시설농가는 과수재배를 하고 있으며 시설과수의 경우 정밀제어 시스템보다는 저렴한 간단한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자체서버를 이용한 천·축장 개폐, 공기순환

환, 환풍기 등의 원격제어와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개발에 나선다. 내년에는 오픈소스 기반 저비용 센싱 장치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 이후에는 오픈소스 기반 저비용 센싱 및 단위제어 시스템을 농가 현장 실증을 통해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에 적극 대응하고 제주형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페르카의 제반효과

- 잡초의 경감
-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높은 저장성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최첨단 융합기술로 탄생한 100% 수용성 입상 스마트비료입니다!”

코콜리 100% 수용성 비료
15-3-5+독수물질5중

독수물질
독수물질 15% 함유는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PGA
영양분 흡수를 촉진하여, 비료 흡수를 촉진 및 뿌리, 근권,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합니다.

비산방지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여, 비료 분해 속도를 늦추고,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효소첨가
과실의 숙성을 촉진시키고, 맛을 개선하며, 수확 후에도 신선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완벽한
독수물질 15% 함유는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PGA
영양분 흡수를 촉진하여, 비료 흡수를 촉진 및 뿌리, 근권,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합니다.

비산방지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여, 비료 분해 속도를 늦추고,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효소첨가
과실의 숙성을 촉진시키고, 맛을 개선하며, 수확 후에도 신선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 · 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엽면시비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